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최옥진* · 조근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교·내외의 장소에 상관없이 학교가 주관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물론 학교일과 시작 전·후와 등·하교 시에 학생이 전체적 상해를 입는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으나²⁾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1세부터 19세까지 사고 사망률은 100,000명 당 12.6명에 달하고³⁾ 실제 교사들의 50% 이상이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42%는 야외수업 등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다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고된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는 2003년 22,722건,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곳에서 습득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학교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학생인구가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응급의료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 교육은 일정한 시기에 단편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초등교육에서부터 연령에 맞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령기의 교육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교육은 동기유발, 교육의 연속성 유지, 교육시간 배정 등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수월하며, 가정에서나 졸업 후 사회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⁶⁾.

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응급처치 교육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보건복지부는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의료생활화교육기반 확대'의 세부추진 계획으로 '학교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등의 보수교육 시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추진하여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학교교육 과정 중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정규 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⁷⁾.

초·중·고등학교에서 응급의료 교육은 교과활동 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모두 보건교사에 의해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⁸⁾,

* 공주대학교 보건학부 전문응급구조학전공

** 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고등학교 보건교육에서 교육이 절실한 프로그램 중 ‘응급처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다⁹⁾. 보건교사의 역할은 1980년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건교육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한 이래 2002년 8월 26일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보건교사의 채용은 2003년 4월 6,500명을 넘었으며¹⁰⁾ 2009년 3월 이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므로¹¹⁾ 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의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교사는 매년 초 학교에 시달되는 학교보건 기본방향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응급처치(약물 오·남용 예방, 전염병예방, 성교육, 구강교육, 비만예방, 시력저하예방, 안전교육) 업무를 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⁵⁾.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가 36%이며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주로 발생하는 팔 다리의 골절, 치아 손상, 뇌진탕, 관절 염좌, 안면부 부상 등¹²⁾의 학교안전사고시 주된 처치를 하는 보건교사의 금전적 손실 또는 심리적 어려움과 법적 분쟁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기에 학교안전사고의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응급처치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및 원하는 술기교육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수행 가능한 응급처치와 보건교사가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파악해 효과적인 보건교사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 내용 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응급처치 수행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4) 대상자가 집중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술기교육을 파악한다.

II.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보건교사가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200개 중 설문지가 회수된 87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7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D광역시 200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우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90부가 회수되었으며, 미기재 내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고¹³⁾, 김¹⁴⁾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 보건교사 3인이 검토하여 내용 타당도를 높였으며,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각각의 문항이 필요 없음 1

점, 필요함 2점, 매우 필요함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각각의 문항이 원치 않음 1점, 원함 2점, 매우 원함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응급처치 교육관련 특성 2문항, 응급상황 관련 2문항, 응급처치 술기 자신감 관련 2문항, 응급처치 시 어려운 점 관련 1문항, 응급처치 교육 의사 관련 3문항,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15문항, 응급처치 요구도 15문항, 술기교육 우선순위 1문항 총 4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Cronbach' $\alpha = .962$,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Cronbach' $\alpha = .957$ 이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C 14.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 교육관련 특성, 술기교육 우선순위는 기술통계로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4)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87명(100%) 전원이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가 15명(17.24%), 30~39세가 21명(24.14%), 40~49세가 30명(34.48%)이었으며, 50세 이상이 21명(24.14%) 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전문대학 졸업 12명(13.79%), 대학교 졸업 52명(59.77%), 대학원 졸업이 23명(26.44%)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 35명(40.23%), 천주교 11명(12.64%), 불교 10명(11.49%), 없음이 31명(35.63%)으로 가장 많았다. 재직 기간은 5년 이하 23명(26.44%), 5년 초과~10년 이하 6명(6.90%), 10년 초과~20년 이하 30명(34.48%), 20년 초과 28명(32.18%)이었다. 준거 집단은 없음 72명(82.76%)으로 가장 많았고, RCY 13명(14.94%), 기타 2명(2.30%) 순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3점 척도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29세가 2.35, 30~39세가 2.36, 40~49세가 2.58이었으며, 50세 이상이 2.35로 40~49세가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20~29세가 2.32, 30~39세가 2.23, 40~49세가 2.32이었으며, 50세 이상이 2.07이었다. 교육정도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전문대학 졸업 2.35± .45, 대학교 졸업 2.43 대학원 졸업이 2.53으로 대학원 졸업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요구도는 전문대학 졸업 2.16, 대학교 졸업 2.30, 대학원 졸업이 2.14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기독교 2.43, 천주교 2.41, 불교 2.47, 없음 2.58이었으며, 교육 요구도는 기독교 2.25, 천주교 2.24, 불교 2.23, 없음 2.19이었다. 재직 기간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5년 이하 2.35, 5년 초과 10년 이하 2.68, 10년 초과 20년 이하 2.45, 20년 초과 2.43이었으며, 5년 이하 2.28, 5년 초과 10년 이하 2.39, 10년 초과 20년 이하 2.25, 20년 초과 2.15로 교육 필요도 교육 요구도 모두 5년 초과 10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필요도와 요구도 차이

(N = 87)

특 성	구 분	N (%)	필요도		F (p)	요구도		F (p)
			M	SD		M	SD	
성 별	여 자	87 (100)						
연 령	20~29세	15 (17.24)	2.35	.38	1.38 (.26)	2.32	.38	1.30 (.28)
	30~39세	21 (24.14)	2.36	.50		2.23	.36	
	40~49세	30 (34.48)	2.58	.39		2.32	.47	
	50세 이상	21 (24.14)	2.35	.59		2.07	.61	
교육정도	전문대학 졸업	12 (13.79)	2.35	.45	.54 (.58)	2.16	.63	1.13 (.33)
	대학교 졸업	52 (59.77)	2.43	.45		2.30	.40	
	대학원 졸업	23 (26.44)	2.53	.52		2.14	.50	
종 교	기독교	35 (4.23)	2.43	.45	.29 (.83)	2.25	.42	.04 (.99)
	천주교	11 (12.64)	2.41	.51		2.24	.53	
	불 교	10 (11.49)	2.47	.46		2.23	.41	
	없 음	31 (35.63)	2.58	.49		2.19	.54	
재직기간	5년 이하	23 (26.44)	2.35	.55	.64 (.59)	2.28	.39	.55 (.65)
	5년 초과~10년 이하	6 (6.90)	2.68	.40		2.39	.39	
	10년 초과~20년 이하	30 (34.48)	2.45	.41		2.25	.45	
	20년 초과	28 (32.18)	2.43	.52		2.15	.58	
준거집단	RCY	13 (14.94)	2.63	.48	.99 (.38)	2.31	.51	.55 (.58)
	기 타	2 (2.30)	2.47	.66		2.50	.71	
	없 음	72 (82.76)	2.41	.47		2.22	.46	

이하가 가장 높았다. 준거 집단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RCY 2.63, 기타 2.47, 없음 2.41, 순이었고, 교육 요구도는 기타 2.50, RCY 2.31, 없음 2.22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F=1.38, p= .26, 교육 요구도 F=1.30, p= .28, 교육 정도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F= .54, p= .26, 교육 요구도 F=1.13, p= .33, 종교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F= .29, p= .83, 교육 요구도 F= .04, p= .99이었고, 재직기간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F= .64, p= .59,

교육 요구도 F= .55, p= .65이었으며, 준거집단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F= .99, p= .38, 교육 요구도 F= .55, p= .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했다<표 1>.

3. 응급처치 교육 내용과 교육 경험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경험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69명(79.30%),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71명(81.60%), '지혈법' 60명(68.96%), '상처 처치법' 66명(75.86%),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62명(71.26%),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59명(67.81%),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54명(62.06%), '쇼크 처치법' 60명(68.96%), '기도폐쇄' 64명(73.56%), '심폐소생술' 72명(82.75%), '중독처치법' 49명(56.32%), '환경응급 처치법' 55명(63.21%), '내과적 응급처치법' 3명(43.67%), '정신응급 처치법' 31명(35.63%), '환자 운반법' 39명(44.82%)으로 심폐소생술이 가장 많은 교육경험 빈도를 나타냈고,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파악 방법, 상처 처치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경험 (N = 87)

내 용	교육경험 N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69 (79.30)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71 (81.60)
지혈법	60 (68.96)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66 (75.86)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62 (71.26)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59 (67.81)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54 (62.06)
쇼크 처치법	60 (68.96)
기도폐쇄	64 (73.56)
심폐소생술	72 (82.75)
중독처치법(농약, 약물 등)	49 (56.32)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익수 등)	55 (63.21)
내과적 응급(저혈당, 뇌졸중, 간질, 급성 복부질환 등) 처치법	38 (43.67)
정신응급(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처치법	31 (35.63)
환자운반법	39 (44.82)
전 체	75 (86.20)

4.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3점 척도로 전체 평균은 2.44± .47이었고 '일차적인 상황파악 방법' 2.64± .54, '기도폐쇄' 2.63± .57, '심폐소생술' 2.56± .67,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2.56± .53, '쇼크 처치법' 2.53± .58, '상처 처치법' 2.51± .56, '지혈법' 2.49± .58,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2.46± .65, '내과적 응급처치법' 2.43± .58,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2.39± .57, '환경응급 처치법' 2.35± .59,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2.33± .56이었고 '중독 처치법' 2.31± .68, '정신응급 처치법' 2.28± .59, '환자운반법' 2.25± .55 순이었다.

교육 요구도의 전체 평균은 교육 필요도 보다 낮은 2.23± .41이었으며 '기도폐쇄' 2.50± .56, '심폐소생술' 2.49± .56, '쇼크 처치법' 2.40± .60, '내과적 응급 처치법' 2.38± .59, '정신응급 처치법' 2.31± .60, '일차적인 상황파악방법' 2.31± .62,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2.31± .62, '환경응급 처치법' 2.26± .58,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2.24± .62, '환자운반법' 2.21± .60, '중독 처치법' 2.18± .59, '지혈법' 2.17± .58, '상처 처치법' 2.19± .60,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2.11± .59,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2.06± .77 순이었다.

응급처치 필요도는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응급처치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t=4.714, p= .000), '일차적인 상황파악 방법'(t=4.087, p= .000), '지혈법'(t=4.696, p= .000), '상처 처치법'(t=4.509, p= .000),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t=3.185, p= .002),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t=3.090, p= .0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표 3>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N = 87)

내 용	교육경험		필요도		요구도		t	P
	N	(%)	M	SD	M	SD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69	(79.30)	2.46	.65	2.06	.77	4.714	.000
일차적인 상황과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71	(81.60)	2.64	.54	2.31	.62	4.087	.000
지혈법	60	(68.96)	2.49	.58	2.17	.58	4.696	.000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66	(75.86)	2.51	.56	2.19	.60	4.509	.000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 함한 사지부목법)	62	(71.26)	2.56	.53	2.31	.62	3.185	.002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59	(67.81)	2.33	.56	2.11	.59	3.090	.003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54	(62.06)	2.39	.57	2.24	.62	2.171	.033
쇼크 처치법	60	(68.96)	2.53	.58	2.40	.60	1.911	.060
기도폐쇄	64	(73.56)	2.63	.57	2.50	.56	1.911	.060
심폐소생술	72	(82.75)	2.56	.67	2.49	.56	.928	.357
중독처치법(농약, 약물 등)	49	(56.32)	2.31	.68	2.18	.59	1.693	.095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익 수 등)	55	(63.21)	2.35	.59	2.26	.58	1.180	.242
내과적 응급(저혈당, 뇌졸중, 간질, 급성 복부질환 등) 처치법	38	(43.67)	2.43	.58	2.38	.59	.893	.375
정신응급(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처치법	31	(35.63)	2.28	.59	2.31	.60	-.363	.718
환자운반법	39	(44.82)	2.25	.55	2.21	.60	.623	.535
전 체	75	(86.20)	2.44	.47	2.24	.47	3.27	.002

이가 있었고, 필요도 보다 요구도가 낮았다<표 3>.

5.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 경험시 응급처치 유무

응급상황 경험을 한 대상자는 71명(81.61%)으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3점 척도에 2.27± .49였고, 응급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는 16명(18.39%)이며,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2.09± .33

이었고 응급상황 경험한 대상자의 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7, p= .175). 응급상황을 경험한 71명(81.61%) 중 응급처치를 한 대상자는 71명중 66명(75.9%)으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3점 척도에 2.27± .50이었으며,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5명(5.7%),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2.32± .27이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t= .31, p= .861)<표 4>.

<표 4>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처치 유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N = 87)

특 성	구 분	N (%)	요구도		t or F (p)
			M	SD	
응급상황 경험	Y	71 (81.61)	2.27	.49	1.87 (.175)
	N	16 (18.39)	2.09	.33	
응급 상황 경험시 응급처치 유무	Y	66 (75.9)	2.27	.50	.31 (.861)
	N	5 (5.7)	2.32	.27	

6. 응급처치 술기 자신감과 어려운 점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자신감은 ‘일부 처치에 대해서만 자신 있다’ 60명(8.00%), ‘자신 있다’ 12명(16.00%), ‘자신 없다’ 3명(4.00%) 순이었고, 자신 있는 응급처치에 관한 다중 응답은 ‘상처 처치법’ 69명(93.24%), ‘코피, 이물질, 열사병 등 상황별응급처치’ 61명(82.43%), ‘지혈법’ 59명(81.08%),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58명(78.37%),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53명(71.62%), ‘쇼크처치’ 41명(55.40%), ‘심폐소생술’ 35명(47.29%), ‘기도폐쇄처치’ 34명(45.94%), ‘환자운반법’ 33명(44.59%) 순이었다. 응급처치 시 어려운 점을 묻는 다중응답에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서 32명(36.78%),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부족해서 31명(35.63%), 응급처치 술기에 자신감이 없어서 18명(20.687%),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1명(12.64%), 질병에 대한 감염의 우려 때문에 3명(3.44%), 기타 3명(3.44%) 순이었다<표 5>.

7. 응급처치 교육 관련 의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받을 의사는 ‘받겠다’가 84명(97.67%), ‘받지 않겠다’가 2명(2.32%)으로 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자가 월등하게 많았으며, 3점 척도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교육 받겠다’가 2.39± .39였으며, ‘교육 받지 않겠다’의 교육 요구도는 2.12± .45로 교육 받겠다는 대상의 필요도와 요구도가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F=13.685, p= .000).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구체적인 응답으로 ‘반드시 받겠다’가 45명(53.57%), ‘여건 허락 시 받겠다’ 39명(46.42%)이었으며, 3점 척도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는 ‘반드시 받겠다’가 2.39± .39이었으며, ‘여건 허락 시 받겠다’의 교육 요구도는 2.12± .45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F=8.620, p= .004) <표 6>.

<표 5> 응급처치술기 자신감과 응급처치시 어려운 점

특 성	구 분	N (%)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자신감(N=75)	일부 처치에 대해서만 자신있다.	60 (8.00)
	자신 있다	12 (16.00)
	자신 없다	3 (4.00)
자신있는 응급처치 (다중응답)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69 (93.24)
	상황별응급처치(코피, 이물질, 열사병)	61 (82.43)
	지혈법	59 (81.08)
	일차적인 상황과약(환자 상태 확인) 방법	58 (78.37)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53 (71.62)
	쇼크처치	41 (55.40)
	심폐소생술	35 (47.29)
	기도폐쇄처치	34 (45.94)
환자운반법	33 (44.59)	
응급처치시 어려운 점 (다중응답)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서	32 (36.78)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부족해서	31 (35.63)
	응급처치 술기에 자신감이 없어서	18 (2.687)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1 (12.64)
	질병에 대한 감염의 우려 때문에	3 (3.44)
	기타	3 (3.44)

<표 6> 응급처치 교육 의사

(N = 86)

특 성	구 분	N (%)	요구도		F	p
			M	SD		
교육받을 의사	Y	84 (97.67)	2.39	.39	13.685	.000
	N	2 (2.32)	2.12	.45		
교육받을 구체적인 의사	반드시 받겠다.	45 (53.57)	2.39	.39	8.620	.004
	여건 허락시 받겠다.	39 (46.42)	2.12	.45		

응급처치 교육을 받겠다는 대상자 84명(97.67%) 중 응급처치 교육을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응급상황시 사용하기 위해’ 78명(89.65%),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45명(51.72%), ‘응급환자 처치에 부족함을 느껴서’ 44명(50.57%),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39명(44.82%), ‘자기개발 차원에서’ 30명(34.48%), ‘응급처치를 안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명(24.13%), ‘보수교육 등의 교육기회가 주어져서’ 12명(13.79%) 순으로 나타났다<표 7>.

8.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따른 집중적인 술기 교육 요구 우선순위

집중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술기 중 1순위는 ‘심폐소생술’ 28명(32.18%), ‘일차적인 상황과 약 방법’ 27명(31.03%), ‘기도폐쇄처치’ 12명(13.79%), ‘쇼크처치’ 5명(5.75%)의 순으로 나타났

고, 2순위는 ‘기도폐쇄처치’ 31명(35.63%), ‘심폐소생술’ 15명(17.24%),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12명(13.79%), ‘쇼크처치’ 7명(8.05%)의 순이었으며, 3순위는 ‘쇼크처치’ 24명(27.59%), ‘심폐소생술’ 15명(17.24%),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14명(16.09%), ‘기도폐쇄처치’ 11명(12.64%) 순이었으며 4순위는 ‘쇼크처치’ 14명(16.09%), ‘상처 처치법’ 13명(14.94%),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2명(13.79%), ‘기도폐쇄처치’ 8명(9.20%), 다섯 번째는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22명(25.29%),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2명(13.79%), ‘지혈법’ 10명(11.49%), ‘상처처치법’ 9명(10.34%), 6순위는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8명(20.69%), ‘상처 처치법’ 13명(14.94%), ‘지혈법’ 12명(13.79%),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7명(8.05%)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응급처치 교육 참여 이유

특 성	구 분	N (%)
응급처치 교육 참여 이유 (다중응답)	학교내 응급상황시 사용하기 위해	78 (89.65)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45 (51.72)
	응급환자 처치에 부족함을 느껴서	44 (50.57)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39 (44.82)
	자기개발 차원에서	30 (34.48)
	응급처치를 안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 (24.13)
	보수교육 등의 교육기회가 주어져서	12 (13.79)
합 계		269

<표 8> 집중적인 응급처치술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집중술기 요구 우선순위	교육 내용	N (%)
1	심폐소생술	28 (32.18)
	일차적인 상황과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27 (31.03)
	기도폐쇄처치	12 (13.79)
	쇼크처치	5 (5.75)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5 (5.75)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2 (2.30)
2	기도폐쇄처치	31 (35.63)
	심폐소생술	15 (17.24)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12 (13.79)
	쇼크처치	7 (8.05)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6 (6.90)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6 (6.90)
3	쇼크처치	24 (27.59)
	심폐소생술	15 (17.24)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14 (16.09)
	기도폐쇄처치	11 (12.64)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5 (5.75)
	일차적인 상황과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5 (5.75)
4	쇼크처치	14 (16.09)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13 (14.94)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2 (13.79)
	기도폐쇄처치	8 (9.20)
	지혈법	8 (9.20)
	환자운반법	8 (9.20)
5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22 (25.29)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2 (13.79)
	지혈법	10 (11.49)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9 (10.34)
	기도폐쇄처치	7 (8.05)
	쇼크처치	6 (6.90)
6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18 (20.69)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13 (14.94)
	지혈법	12 (13.79)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7 (8.05)
	기도폐쇄처치	7 (8.05)
	쇼크처치	6 (6.90)

9.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상관관계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는 교육 필요도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579, p = .002$) <표 9>.

<표 9>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와 교육 필요도의 상관관계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p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597**	.002

** $p < .01$

IV. 고찰

학교안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증가 폭은 매우 크다⁵⁾.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가 36%⁴⁾인 것을 감안할 때 다양한 학교안전사고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어떤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사 응급처치 교육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필요도와 요구도 차이에서 대상자 전원(87)이 여성이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40~49세가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2.58)와 교육 요구도(2.32) 가장 높았다. 교육정도에서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대학원 졸업(2.53)이 가장 높았고, 요구도는 대학교 졸업(2.30)이 가장 높았다. 종교는 '없음'의 교육 필요도(2.58)가 가장 높은 반면 교육 요구도(2.19)는 가장 낮았고, 교육 요구도는 기독교(2.25)로 가장 높았다. 재직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초과~10년 이하의 교육 필요도(2.68)와 교육 요구도(2.39)가 가장 높아 재직기간 6~9년이 응급처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김¹⁵⁾의 연구와 유사했으나, 조¹⁶⁾의 연구에서

는 5년 초과~10년 이하의 교육 필요도(1.97)와 교육 요구도(1.9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에서 교육 필요도(2.63)는 RCY가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기타(2.50)가 가장 높았지만,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응급처치 교육은 86.2%(75명)가 교육 경험이 있었고 이는 조¹⁶⁾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40.8%(29명), 김¹⁵⁾이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62.5%(90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일반교사와 체육교사보다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경험은 '심폐소생술' 82.75%(72명),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81.60%(71명),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79.30%(69명), '상처 처치법' 75.86%(66명), 기도폐쇄 73.56%(64명)의 순이었다.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환자 상태확인을 포함한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기도폐쇄' 2.63, '심폐소생술' 2.56, '쇼크 처치법' 2.53, '상처 처치법' 2.51 순이었고, 교육 요구도는 '기도폐쇄'가 2.50로 가장 높아 김¹⁴⁾의 연구에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92.7)과 유사한 결과이며, '심폐소생술' 2.49, '쇼크 처치법' 2.40, '내과적 응급 처치법' 2.38,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2.31, '정신응급 처치법' 2.3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는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과약방법', '지혈법', '상처처치법'에서 유의한 차이($p = .000$)를 보였는데, 필요도보다 요구도가 낮은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교육 등으로 이미 잘 알고 있어 교육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조¹⁶⁾의 응급상황시 행동요령의 필요도 2.43, 요구도 1.90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 = .000$)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p= .002)과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도(p= .003)도 필요도와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필요도보다 요구도가 낮았으며, 전체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275, p= .000). 반면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가 모두 높은 기도폐쇄(p= .060), 심폐소생술(p= .35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많이 요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응급상황을 경험한 보건교사(81.61%)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2.27)가 그렇지 않은 보건교사(18.39)의 교육 요구도(2.09)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응급상황을 경험한 보건 교사 중 응급처치를 한 경우(75.9%),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보건교사(5.7%)로 이와 관련된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자신감은 '일부 처치에 대해서만 자신 있다'(80%), '자신있다'(16%), '자신 없다'(4%) 순으로 자신 있는 응급처치 술기는 상처 처치법(93.24%), 코피, 이물질 등의 상황별 응급처치(82.43), 지혈법(81.08), 일차적인 상황 파악 방법(78.37), 골절, 탈골 염좌 처치법(71.26)으로 초등학교 일반 교사가 경험한 응급상황¹⁶⁾과 초등학교 안전사고 중 사고와 관련된 손상¹⁷⁾과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으며, 응급처치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서 36.78%(32명),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부족해서 35.63%(31명) 순으로, 김 등의 연구¹⁵⁾에서 응급처치 교육 시 애로점 중 교육 보조자료의 부족이 48.3%(70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응급처치 장비의 구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겠다'의 교육 필요도(2.44)와 교육 요구도(2.39)가 '안 받겠다'의 교육 필요도(2.17)와 교육 요구도(2.12)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반드시 받겠다'의 교육 필요도(2.62)와 교육 요구도(2.39)가 '여건 허락 시 받겠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응급상황 시 사용하기 위해(89.65%),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51.72%), 응급환자 처치에 부족함을 느껴서(50.57%),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44.82%)의 순이었다. 학교에서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육받을 의사가 있으며(97.67%) 이는 조¹⁶⁾의 연구에서 95.8%가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 술기교육 중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시작되는¹⁷⁾ 상황의 응급처치로 1·2·3순위에 각각 1·2·2위로 술기 교육 관심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고,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기도폐쇄 또한 1·2·3순위에 각각 3·1·4위로 술기 교육관심도가 높음을 나타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집중적 술기교육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 심폐소생술은 1·2순위에서 각각 2·2위, 기도폐쇄는 2·3순위에서 2·2위를 나타낸 것¹⁹⁾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 요구도(2.40)가 기도폐쇄, 심폐소생술에 이어 3번째인 쇼크 처치법은 1·2·3·4순위에서 각각 4·4·1·1위로 술기 교육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쇼크에 대한 처치법은 병원 전 구성요소인 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일반인, 최초 반응자, 응급의료 전문요원 전문 응급구조사¹⁷⁾ 중 전문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쇼크 응급처치 등에 가장 전문적인 술기 교육을 받은 집단이므로 보건교사의 요구도가 높은 술기 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전문 응급구조사가 술기 교육의 책임자라 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요구도 및 수행 가능한 응급처치와 보건교사가 요구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파악해 보건 교사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7일까지 D시의 보건교사가 있는 20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8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C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paired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전원(87명)이 여자였고, 연령은 40~49세가 34.48%(30명)로 가장 많았으나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 59.77%(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0.23%(35명), 없음 35.63%(31명) 순이었다. 재직 기간은 10년 초과~20년 이하가 34.48%(30명)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10년 이하가 6.90%(6명)로 가장 적었으며, 준거 집단은 없음이 82.76%(72명)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40~49세가 2.58로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20~29세와 40~49세에서 2.32로 가장 높았다. 교육정도에 따른 교육 필요도는 대학원 졸업이 2.53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대학 졸업이 2.30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는 없음의 교육 필요도가 2.58로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기독교 2.25로 가장 높았으며, 재직기간에 따른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는 5년 초과~10년 이하에서 각각 2.68, 2.39로 가장 높았다. 준거집단 중 RCY의 교육 필요도가 2.63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기타가 2.50으로 가장 높았다.
3. 대상자의 86.20%(75명)가 응급처치 교육 경험이 있으며,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 빈도는 '심폐소생술' 82.75%(72명), '일차적인 상황과악(환

자 상태 확인) 방법' 81.60%(71명),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79.30%(69명), '상처 처치법' 75.86%(66명), '기도폐쇄' 73.56%(6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는 '환자 상태확인을 포함한 일차적인 상황과악 방법'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기도폐쇄' 2.63, '심폐소생술' 2.56, '쇼크 처치법' 2.53 '상처 처치법' 2.51 순이었고, 교육 요구도는 '기도폐쇄' 2.50, '심폐소생술' 2.49, '쇼크 처치법' 2.40, '내과적 응급 처치법' 2.38, '일차적인 상황과악 방법' 2.31, '정신응급 처치법' 2.3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과악방법', '지혈법', '상처처치법'에서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고,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p=.002$)과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도($p=.003$)도 필요도와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필요도보다 요구도가 낮았으며, 전체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3.275, p=.000$).

4. 응급상황을 경험한 보건교사(81.61%)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2.27)가 그렇지 않은 보건교사(18.39)의 교육 요구도(2.09)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1.87, p=.175$ 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응급상황을 경험한 보건교사 중 응급처치를 한 경우가 75.9%,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보건교사가 5.7%로 이와 관련된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자신감은 '일부 처치에 대해서만 자신 있다'(80%), '자신 있다'(16%), '자신 없다'(4%) 순으로 자신 있는 응급처치 술기는 상처 처치법(93.24%), 코피, 이물질 등의 상황별 응급처치(82.43), 지혈법(81.08), 일차적인 상황과악 방법(78.37), 골절, 탈골 염좌 처치법(71.26) 순이었으며, 응급처치 시 어려웠던 점

으로는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서 36.78%(32명),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부족해서 35.63%(31명) 순이었다.

5. 응급처치 교육을 받겠다는 대상자가 97.67%(84명)이었으며,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응급상황 시 사용하기 위해(89.65%),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51.72%), 응급환자 처치에 부족함을 느껴서(50.57%),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44.82%)의 순이었고,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 술기교육은 1순위의 1위가 심폐소생술 32.18%(28명), 2위는 일차적인 상황과약(환자 상태 확인) 방법 31.03%(27명), 3위가 기도폐쇄처치 13.79%(12명)이었고 2순위의 1위가 기도폐쇄처치 35.63%(31명), 2위는 심폐소생술 17.24%(15명), 3위가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붕대법 포함한 사지부목법) 13.79%(12명) 3순위의 1위가 쇼크처치 27.59%(24명), 2위는 심폐소생술 17.24%(15명), 3위가 골절, 탈구, 염좌 처치법 16.09%(14명)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 환자 상태 확인을 포함한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의 상처 처치법, 기도폐쇄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처 처치법, 코피, 이물질 등의 상황별 응급처치, 지혈법, 환자 상태 확인을 포함한 일차적인 상황과약 방법, 골절, 탈골 염좌 처치법은 자신 있는 응급처치이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과약방법, 지혈법, 상처 처치법은 필요도 보다 요구도가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필요도는 높으나 교육과 잦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대처 능력이 발생하여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교육 요구도 및 집중적인 술기교육 우선 순위가 높은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교육을 전문 응급구조사를 통해 활성화

화하고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지리적 분포가 고려된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와 요구도 및 집중 교육을 원하는 술기에 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한승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 교육행정학 연구. 1997;17(2):89-112.
2. 박성은, 정연강, 박은자. 학교의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 중앙간호논문집. 2001;5(2: 79-88).
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6
4. 최성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 교사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연구.
5. 이진숙.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6. 이연승. 고교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 내용 및 요구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7. 21C 안전국가 선도를 위한 '05~'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5.7.
8. 조준필. 초·중·고등학교 응급의료교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2006.7(61-63).
9. 이명숙. 고등학교 보건 교육 현황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교육인적자원부. 2004.
11. 학교보건법. 법률 제 9812호 2008.03.21.
12. 경기도 안전공제회, 2001.
13. 고봉연, 이정은. 대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동남보건대학논문집 19(2):259-268. 2001.

14. 김미선.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술기교육 효과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와 환자상태 확인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8.
15. 김훈철, 김세환, 박기동, 김승재. 중학교응급처치 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강원대학교부설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999;23:89-102.
16. 조근자.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7;11(3):139-151.
17. 고재문, 이재현. 학교안전사고 응급처치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7;1(1):112-125.
18. 황성오, 임경수.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구조술. 제 3판. 서울: 군자출판사; 2006.3.
19. 조근자, 최은숙, 이현주.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교육 요구도.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7.11(3):175-189.

=Abstract =

The study of Needs and Demands for First Aid Education of School Health Educator

Uk-Jin Choi* · Keun-Ja Cho**

Purpose : With increasing number of school accidents, it is crucial to find out the demands and necessity of first aid training among school health educator.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have an clear idea on the demands and necessity for first aid training and what kind of training is most required from school health educator.

Method :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from 87 school health educator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ealth educator in the city D were analyz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May 26, 2008 to June 7, 2008 and from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paired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onducted with SPSS 14.0.

Result :

1. 51.61% of nurse-teachers experienced emergency situation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necessity they felt from experiencing those situations and demands for first aid training were not statistically meaningful($t=1.87$, $p=.175$).
2. Necessity and demands for the first-aid training were checked with three point scale and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with $2.44 \pm .47$ and $2.24 \pm .47$ respectively($t=3.275$, $p=.000$).
3. 86.20%(75 persons) of the respondents have had received first aid training and the training they received were CPR 82.75%(72 persons), primary survey 81.60%(71 persons), contact to 911 79.30%(69 persons) and wounds treatment(lacerated wounds, burn and chilblains) 75.86%(66 persons) in order.
4. As for the questions that ask on confidence of first-aid treatment, 80% answered they are confident on some limited kinds of treatments, 16% said they are confident and 4% answered they lack confidence. As for the treatment that they can show the highest confidence, wounds treatment topped the list with 93.24%, nose bleeding and removing foreign substance, and stanching followed the list with 82.43% and 81.08% respectively.
5. 97.67%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willing to take training and 89.62% answered to take the training to deal with emergency situa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ir schools. As for the question that asks for the most wanted treatments, CPR topped the list with 32.18%(28 persons) and treatment for obstruction of airway and shock followed the list with 35.63%(31 persons) and 27.59%(24 persons).

Conclusion : Currently, first aid treatment has been centered on CPR, primary survey, contact to 119 and wounds treatment. However, since most of school health educator are fairly confident with wounds treatment, stanching and other first aids, in future training it will be more desirable to focus on CPR and treatment for obstruction of airway and shock that were shown to be most wanted by school health educator.

Key Words : School health educator, Education demand, Education need, First aid education

*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